

도-장수군, 고령자 복지주택 80호 공급

저층부 복지관·고층부에 임대주택 제공하는 노인 특화시설 고령화율 높은 장수군의 어르신 복지거점으로 활용키로

전북도는 8일 국토부가 공모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돼 148억(국비 및 주택도시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수군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 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전북 장수군(80호)을 비롯해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등 3개 지구(260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욕상타발 등을 특화한 고령자 특화 복지 시설 1,2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수군의 고령화율(36%)이 도내 평균 고령화율(22.18%)의 1.6배에 달하는 점을 비추어 해당 시설은 고령자 주거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과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다.

또한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기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동안 도내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부안 봉덕(80호), 지난해 4월 정읍 연지(88호)를 준공해 현재 어르신들께 파산한 주거공간과 1층에는 복지관을 개관해 경로식당, 체육활동실, 문화센터 등 다양한 돌봄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2개 지구

278호를 착공(군산 오룡 150호, 고창 울계 128호)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개 지구가 고령자복지주택에 추가로 선정되어 총242억 원을 투입해 노인 맞춤형 고령자 복지주택 112호(전주 평화 12호, 장수 노하 100호)와 사회복지시설(2,300㎡)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데미샘자연휴양림으로 휴가 가자”

성수기 예약추첨 시행... 20일까지 숲나들 누리집서 접수 한옥형 숙박시설·숲 문화마당·물놀이장 등 휴양공간 갖춰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숨쉬는 섬진강의 발원지 전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일까지 숙박시설 예약 추첨을 접수한다.

데미샘자연휴양림은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에 이용객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약 추첨을 시행하고 있다. 예약 신청은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숲나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일차, 객실을 지정해 10당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결정은 숲나들 예약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추첨 결과는 21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당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공개된다.

당첨자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용료를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 소멸된다. 미결제 객실에 한해서는 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으로 전환된다.

전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은 23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집(10동), 한옥형 숙박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 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어울림숲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 공간이다.

허태영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한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7일 군산항 5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해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전북 6개 지부 조합원 2000여명 화물연대 총파업 동참...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출정식이 열렸다. 도내 기업들은 제품 출하 등 업무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파업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 화물연대에서는 6개 지부 약 2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올해 폐지될 예정인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최저 수장)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모든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단계적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업재해 보험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안전 운임제가 정답’이라며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전북본부 집행부는 화물연대 지참대

로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으로 도내 운송료 협상 중인 사업장 위주로 집중 집회와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부 상대로 유가폭등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기동대 등 경찰력 300여 명을 배치해 안전 유지 등에 나선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당장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뉴스

완주군의회, 오늘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8일 제 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제8대 완주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완주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완주 전통문화공민사 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실시한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7차 회의를 열고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완주군의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인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7월 1일 제9대 완주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7월 5일 개원식을 갖고 제9대 완주군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사 인사
▲김 경 수
임 : 기자
명 : 편집국 정치부
(6월 7일자)
구독·광고 문의 063-288-9700

전북경찰청, “지선 관련 95건 수사 중”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신속·정확하게 수사할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7일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시효 만료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선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교양감과 시장, 군수 4명, 광역·기초의원 7명 등 당선인 1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5건 등이 순이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 등을 수사해 자원봉사자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차 안에 5000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잡지사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 조달에 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

커 2명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0년 10월 20일 양양 인근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2대를 이용해 12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A(도)짜리 타고 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도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

도, 장애인거주시설 전문 면담원 모집

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과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희망자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modem1894@koreakr)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의 면담원을 선발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판을 확인하면 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과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김경수 기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표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